

매사냥

매사냥이란 야생에 있는 매를 길들여서 사냥감을 잡도록 하는 전통 사냥법

매사냥 유래

매사냥은 고조선시대 만주지방에서 풍습으로 전해오던 것이 삼국시대 이후 성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매사냥을 전담하는 응방이라는 관청을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확대하여 내응방을 두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의 고유한 풍습이라 하여 금지 했다가 해방 후 다시 소생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매의 종류와 길들이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매로는 참매, 송골매, 황조롱이가 있으며 빠른 비행능력과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매는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매를 다룰 수 있다.



참매



송골매



황조롱이

야생의 매를 '잡는다'는 표현 대신에 '매 받는다'라고 말한다.

매를 받은 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을 없앤 뒤 핏기와 기름기를 제거한 고기를 먹여 매의 몸의 기름을 뺀 후에 산에 데려가 놔 줬다가 쫓고기를 들고 유인해 주인인 팔에 내려앉게 하는 연습을 거듭한다.

사냥하는 방법

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봉반이, 꿩을 모는 털이꾼, 매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는 배꾼 등 5~6명이 팀을 이뤄 사냥에 나선다.

야산에서 털이꾼이 "애기야!!"라고 소리치며 수풀에 숨어있던 꿩을 날려보낸다. 봉반이는 소리를 듣고 꿩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매를 날려보내며 "매 나간다!"하고 소리친다. 그러면 매가 날아가 꿩을 사냥한다.

매가 잡은 꿩을 포식하면 되돌아가지 않고 야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매가 꿩을 잡으면 민첩하게 움직여 꿩을 빼앗아야 한다.

청도와 매사냥

청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매의 먹이가 되는 꿩이 많이 있어 예부터 겨울철 매사냥이 행해졌다고 하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맥이 끊겼다.

지금은 이서면 출신인 이기복씨가 매사냥의 전통기법을 전수받아 전통 매꾼으로서 다시 사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지정

201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나라가 공동으로 신청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했다. 여러 문화권을 아우르는 공동등재로 처음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돋보이는 좋은 사례로, 매사냥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유산이다.

응사 소개

이기복 (1966~)

청도 이서면 출생. 어릴 적 아버지, 삼촌들과 매사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청도에서 매사냥의 맥을 이어가고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매사냥 보유자 고.전영태, 박정오 응사로부터 전통 매사냥을 전수받아 활동하고 있다.